

등위접속구문내의 격과 일치에 관한 연구

서홍원 · 이은경

(전북대학교)

Seo, Hong-won & Lee, Eun-kyeong. 2005. *The Study of Case and Agreement in the Coordination Structure*.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3(4), 31-48. First, this paper attempts to account for structural properties of coordination construction suggested in the previous study, focusing on the case assignment and number agreement in the coordination construction (CC). When assigning the case in the CC, by eliminating the barrier of &P by L-marking, the case assigner assigns the nominative or the accusative case directly to the first conjunct. Then, the case assigner percolates the case assignment capability to the conjunction. At this point the percolated conjunction assigns the undetermined case to the second conjunct. Consequently, it is possible for the second conjunct to check either the nominative or the accusative case. Second, this paper is to show how to explain the asymmetric number agreement between the subject and the verb in the CC according to sentence order. Considering the number agreement in the CC, in case of SV order, the subject agrees with the whole conjunct,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VS order, the subject agrees with the first conjunct. Based on this, *there*-construction and interrogative sentences are used as typical examples. To explain this phenomenon, I suggest that Bošković's (1997) expletive lowering analysis and Munn's (1999) unmarked derivation principle comply with the economy. At last I will look over their analysis and point out the problems unexplained by this theory.

주제어(Key Words): coordination, case, agreement, percolation, economy

1. 서론

영어의 등위접속(coordination)구문은 많은 통사적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등위접속구문의 통사적 구조가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못한 점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초기 변형 생

성 문법론자들에 의해 제기된 등위접속구문 구조와 X-bar 이론 이후에 등장한 구조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각 이론들이 나름대로의 증거들에 근거하여 등위접속구문의 구조를 규명하고자 하나, 등위접속구문의 모순된 성격으로 인하여 해결될 수 없는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제안된 등위접속구문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등위접속 구문에서의 격 부여와 수 일치에 관한 문제를 설명하고자 한다.

- (1) a. Who can help [NP₁ my father] and [NP₂ me] find housing in Seoul?
 b. Who can help [NP₁ my father] and [NP₂ I] find housing in Seoul?
- (2) a. Between [NP₁ you] and [NP₂ me], it doesn't matter.
 b. Between [NP₁ you] and [NP₂ I], it doesn't matter.

위 예문 (1a)와 (2a)의 경우 등위접속구안에 있는 첫 번째 접속요소 (the first conjunct)인 NP₁과 두 번째 접속요소 (the second conjunct)인 NP₂ 둘 다 타동사 *help*나 전치사 *between*에 의해 대격을 부여받고 있다. 반면에 (1b)와 (2b)의 경우에 NP₁은 대격을 NP₂의 경우에는 주격을 부여받고 있지만, 이 두 문장 모두 모국어 화자들에 의해 정문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P의 구조 내에서 NP₁과 NP₂의 격이 어떻게 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Chomsky (1986)가 제안한 L-marking 방법과 Zoerner (1995)에 의해서 제안된 격 삼투 (case percolation) 방법을 이용하여 가장 타당한 설명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는 본고에서 아래의 (3), (4)의 문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등위접속구문에서의 주어-동사사이의 수일치가 어순에 따라 어떻게 비대칭적으로 일어나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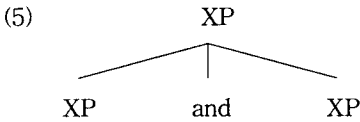
- (3) a. *A book and a pen is on the desk.
 b. A book and a pen are on the desk.
- (4) a. There is a book and a pen on the desk.
 b. *There are a book and a pen on the desk.

위의 문장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SV (주어+동사) 어순인 (3)의 경우는 접

속사구 전체와 수일치가 일어나는 반면에, 예문(4)와 같은 VS (동사+주어) 어순에서는 첫 번째 접속요소와 수일치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Bošković (1997)은 허사하강분석으로 Munn (1999)은 무표적 도출원리에 근거한 경제성 원리로 설명하였다. 본고에서는 그들의 분석을 살펴보고, 문장들을 설명할 때 생기는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2. 등위접속구문의 구조

Ross (1967)와 같은 초기 변형생성 문법론자들에 의하여 제시된 전통적인 등위접속구문의 구조는 아래 (5)와같이, XP가 등위접속사에 의해 단선적으로 연결되는 두 개 이상의 요소를 지배하는 구조이다.



(5)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등위접속사에 의해 연결되는 구성요소들은 가지 위에서 지배하고 있는 XP와 동일한 통사적 범주이다. 즉, 지배하는 XP가 NP이면 연결되는 요소들도 NP이고, VP에 등위 접속되는 요소들도 반드시 VP이다.

그러나 (5)와 같은 등위접속문 구조는 통사구조를 이루는 요소간의 계층적 관계를 기본개념으로 성립된 X-bar이론과 지배결속이론이 대두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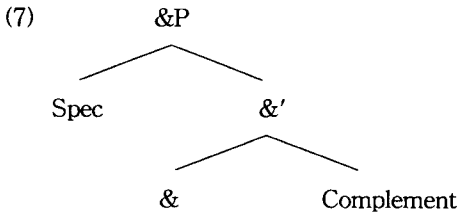
첫째로 (5)의 구조는 X-bar 이론에서 제시하는 ‘모든 구 구조 (phrase structure)는 하나의 핵 (head)을 가져야한다’는 제약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X-bar 이론에서는 X라는 핵이 속한 문법범주에 의해 구 전체의 성격이 결정되는 내심적 (endocentric) 특징을 지니게 되며 모든 구는 단일 핵의 투사로 표현된다. 그러나 (5)의 구조에서는 동일한 XP가 등위접속사에 의해 연결되어 있으므로 두개 이상의 핵을 갖게 되고, 이는 X-bar 이론에서 제시한 단일 핵 구조에 위반되고 있다.

둘째로 (5)의 구조가 X-bar 이론의 관점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계층성 (hierarchy)에 관한 것이다.

- (6) a. John_i's dog and he_i went for a walk.
- b. *He_i and John_i's dog went for a walk.

(6)의 문장들을 (5)에 제시된 구조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John*과 *he*는 서로 서로 지배 범주 안에서 성분통어 (c-command)하고 있다. 따라서 (6a)와 (6b) 문장 모두 지시표현 (R-expression)은 지배 범주 안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결속조건 C를 위반하고 있다. 그러나 두 개의 문장 중에서 단지 (6b)의 문장만이 비문이 되며, (6a)의 문장은 문법적인 문장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첫 번째 접속요소와 두 번째 접속요소사이의 비대칭적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단선형구조가 아닌 새로운 구조의 도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Zoerner (1995)는 단선형 구조의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X-bar 이론의 입장에서 계층적인 &P 구조를 제안하였다.



(7)의 구조에서는 &P는 등위접속사인 &를 핵으로 갖게 되며 첫 번째 등위 접속요소는 &P의 명사어 자리에, 두 번째 등위접속요소는 &P의 보충어 자리에 오고 있다. (5)에 제시된 구조와는 다르게 (7)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닌다.

첫째로 &P는 등위접속사를 핵으로 설정함으로써 모든 구 구조를 핵의 투사로 보는 X-bar 이론의 내심적 특성을 만족시키고 있다.

둘째로 (7)의 구조는 (5)의 단선형 구조에서는 설명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등위접속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Zoerner (1995)는 X'단계인 &'단계를 설정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의 접속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첫째로 &'는 앞서 (6)에 언급된 문장들을 지배결속이론과 관련하여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 (6) a. John_i's dog and he_i went for a walk.
 b. *He_i and John_i's dog went for a walk.

둘째로 &'가 영어등위접속구문에서 하나의 구성성분을 이루고 있음을 가정해야만 아래의 (8), (9), (10)의 문장들을 설명할 수가 있다.

- (8) a. Robin, and Mary like apples.
 b. *Robin and, Mary like apples.
 c. Robin slept, and Mary wept.
 d. *Robin slept and, Mary wept.

(8)의 문장들은 *Robin and Mary*로 이루어진 등위접속구문에서 나타나는 운율 구조의 특징을 보여준다. (8a)와 (8c)만이 정문인 것으로 보아 등위접속사는 두 번째 요소와 결합하여 운율 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8)에 제시된 문장들은 and가 어떤 접속요소와 하나의 구성성분을 이루는가를 설명해줄 수 있으며, and는 둘째 등위접속요소와 구성성분을 이룰 때만이 정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 (9) a. Kim bought [&P a book t] yesterday [&' and a newspaper].
 b. *Kim bought [&P a book and t] yesterday [a newspaper].
 c. *Kim bought [&P t a newspaper] yesterday [a book and].

(9)는 등위구조에서의 문법적 외치 (extraposition)가 일어나는 경우를 설명해주는 문장들이다. 이동은 어떠한 단어 배열이 문장에서 구성요소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결정짓는 방법 중 하나이다. (9b, c)에서처럼 등위접속사 또는 등위접속요소가 단독으로 이동하면 비문이 되는 것을 보아, 등위접속사와 그 다음에 나오는 등위접속요소는 반드시 함께 이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점은 등위접속사와 그 뒤에 나오는 등위접속요소가 &' 단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준다.

- (10) a. Kim bought [&P jam, [&P bread, [&' etc.]]
 b. *Kim bought [&P jam, [&P bread, [&' and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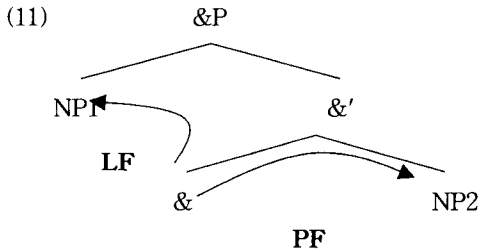
(10)의 문장에서 *etcetera*가 &'의 자리에 위치한 (10a)의 문장은 정문이지

만, and 뒤에 등위접속요소가 나온 (10b)의 문장은 비문이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etcetera*는 등위접속요소만을 대치 (substitution)하는 것이 아니라 등위접속사를 포함하는 &' 단계 전체를 대치한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P 구조는 전통적인 단선형 등위구조에 의해 설명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 구조 또한 &P의 핵인 &와 보충어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등위접속사는 VP, NP, AP, CP, IP와 같은 XP 단계뿐만 아니라 N, V, A, V와 같은 X 단계도 접속시킬 수 있으며, 문법범주의 제한 없이 어떠한 문법 범주도 등위접속사를 통해 접속시킬 수 있다. 이점은 X-bar 이론에서 핵은 취할 수 있는 보충어에 제약을 갖는다는 사실과는 다르다. 즉, &P에서는 &가 취하는 보어의 문법 범주에 관한 제약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핵이 고유한 하위범주화 (subcategorization)를 한다는 일반적인 X-bar이론과는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3. 등위접속구문에서의 격 부여 (Case Assig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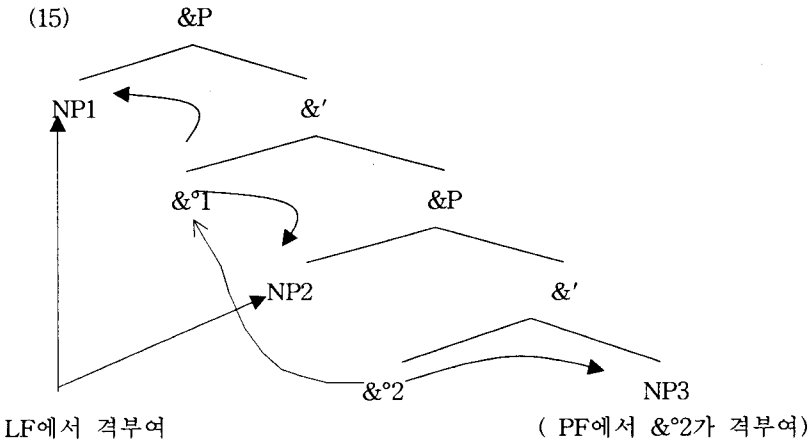
Zoerner (1995)는 등위접속사구문에서 하나의 핵 (&)이 지정어와 보충어 모두에 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보충어의 경우에는 PF에서, 지정어의 경우에는 LF에서 할당한다고 제안하였다. 아래의 수형도를 통해서 그의 이론을 살펴보자.



위 수형도 (11)에서 &앞의 격을 LF에서 부여한다고 가정한 이유는 아래의 (12)-(14)의 예에서 and 뒤에 나오는 명사의 격과 앞에 나오는 명사의 격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구어체에서는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and 앞에 나오는 명사의 격을 LF에서 부여하고 점검한다고 가정한 것이다.

- (12) a. Robin and me left.
 b. Me and Robin left.
- (13) a. He, she and Robin (all) left.
 b. Him, her and Robin left.
- (14) a. He, she and me all left.
 b. Robin saw he, she and me yester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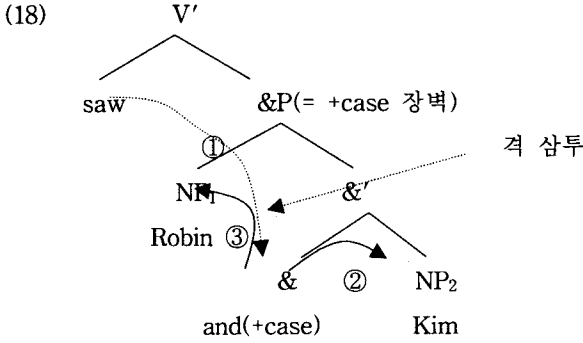
Zoerner는 (15)와 같은 구조를 Larson (1988)의 VP-shell 설명과 유사하게 가정하여 LF에서 &°2가 LF에서 &°1로 인상되면서 격을 부여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의 제안에 근거하여 문장 (17)의 경우를 살펴보면, 등위접속으로 연결된 *Robin and Kim*에게 수형도 (18)에 제시된 것처럼 대격(accusative)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Zoerner는 &P가 장벽(barrier)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동사 *saw*가 직접 첫 번째 NP₁과 NP₂에 격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and*에 격 부여 능력을 삼투¹⁾시킨다고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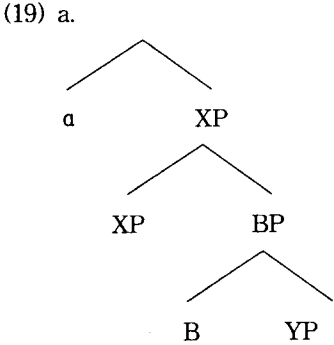
- (17) He saw Robin and Kim.

1) Percolation: The V⁰ must its Case-assigning to the &°₁. (Zoerner, 1995: 40)



한편, Baker (1988)는 동사가 격을 접속 구에 부여할 때는 먼저 동사가 첫 번째 접속요소에 대격을 부여하고, LF에서 '접속사+두 번째 접속요소'가 LF에서 병합된 후 두 번째 접속요소에 대격을 부여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Munn (1993)은 등위접속구문의 구조를 (19a)와 같이 가정하고 (19b)에 제시된 방법처럼 격을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b. In a structure like (19a), if *a* assigns ϕ to XP then B may assign ϕ to YP.²⁾

2) Munn (1993)은 (19)의 설명을 통하여 ECM 동사 *expect*가 보충어로서 등위접속구문을 가질 때 연결되는 접속요소에 따라 문법적인 경우와 비문법적인 경우의 유형을 분석하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Zoerner, Baker, Munn의 설명은 (20b), (21b)와 같은 문장들을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들의 설명에 의하면 (20a)와 (21a)의 경우는 정문이 되지만, (20b)와 (21b)의 경우에는 비문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영어모국어 화자들은 (20b, 21b)의 문장들을 정문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앞서 언급된 격 부여 방법은 수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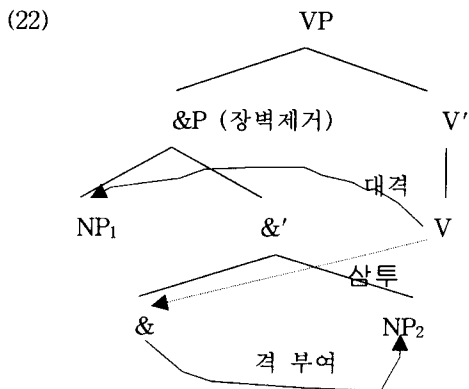
- (20)³⁾ a. Who can help [NP₁ my father] and [NP₂ me] find housing in Seoul?
 b. Who can help [NP₁ my father] and [NP₂ I] find housing in Seoul?
- (21) a. He says he saw [NP₁ John] and [NP₂ me] last night.
 b. He says he saw [NP₁ John] and [NP₂ I] last night.

본고에서는 &P가 장벽으로써 작용하기 때문에 동사나 전치사가 직접 NP₁이나 NP₂에 격을 부여하지 못하고, &에 격 부여 능력을 삼투함으로써 NP₁과 NP₂가 격을 부여받는다. Zoerner (1995)의 제안과는 다르게 우리는 Chomsky (1986)의 L-marking⁴⁾ 방법을 받아들임으로써 &P의 장벽을 제거할 수가 있다. 따라서 예문 (22)의 경우처럼 NP₁의 경우는 타동사나 전치사에 의해서 대격을 직접적으로 할당받는다. 반면에 NP₂의 경우에는 Zoerner에 의해 제안된 격 삼투방법을 받아들임으로써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동사가 &에 격 부여 능력을 삼투하고 &는 NP₂에 격을 부여한다. 그러나 &에 격 부여 능력이 삼투될 때, 격 부여자의 능력만을 삼투할 뿐 대격이나 주격처럼 특별히 정해진 격을 할당하도록 삼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20a, b), (21a, b)의 경우처럼 NP₂의 격이 대격과 주격 중 어느 격으로 실현되어도 정문이 될 수 있다.

3) (15), (16)에 제시된 문장들은 모국어 화자들마다 두 번째 접속요소에 할당하는 격이 다르다. 이러한 사실은 Ellis (2004)의 제안처럼 어떤 특정한 문법요소에 의식적으로 집중하여 답하는 경우에는 평소의 말과는 달리 깊이 생각하여 답함으로써 모국어 화자들의 경우에도 문법성 판단기준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Ellis는 이러한 점을 주목하기 (noticing)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4) L-Marking (Chomsky, 1986: 15)

A L-marks B if and only if A is a lexical category that theta-governs B.



또한 (23a, b)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전치사가 대격을 부여하는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 (23) a. Between you and me, it doesn't matter.
 b. Between you and I, it doesn't matter.

(24a)는 L-marking에 의하여 직접 동사 *saw*가 NP₁에 대격을 부여함으로써 정문이 되지만, (24b)의 경우에는 NP₁에 주격이 할당되어 비문이 된다.

- (24) a. He says he saw [NP₁ me] and [NP₂ John] last night.
 b. *He says he saw [NP₁ I] and [NP₂ John] last night.

TP의 지정어 자리에 주격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삼투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25)의 경우, L-marking에 의해서 &P의 장벽은 제거되고 NP₁은 T에 의해서 직접 주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T는 격 부여 능력을 &에 삼투할 수 있고, &는 NP₂에 정해지지 않은 격을 부여한다. 이때 NP₂는 특별히 정해진 격을 부여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격이나 대격 중 어느 격으로 실현되어도 (25)에 제시된 문장처럼 정문으로 받아들여진다.

- (25) a. He and I will drive to the movies.
 b. He and me will drive to the movies.

4. 등위접속구문의 수일치

아래의 문장 (26), (27)은 문장의 어순에 따라 접속구 주어와 동사 사이의 수의 일치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문장들이다. 즉, SV (주어+동사) 어순에서는 전체의 접속구와 수일치가 일어나고, VS (동사+주어) 어순에서는 첫 번째 접속요소와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 (26) a. *A book and a pen is on the desk.
 b. A book and a pen are on the desk.
 c. *Three books and a pen is on the desk.
- (27) a. There is a book and a pen on the desk.
 b. *There are a book and a pen on the desk.
 c. There are three books and a pen on the desk.
 d. *There are a book and three pens on the desk.

(26)과 (27)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Bošković (1997)는 (28)과 같은 허사 하강분석 (expletive lowering analysis)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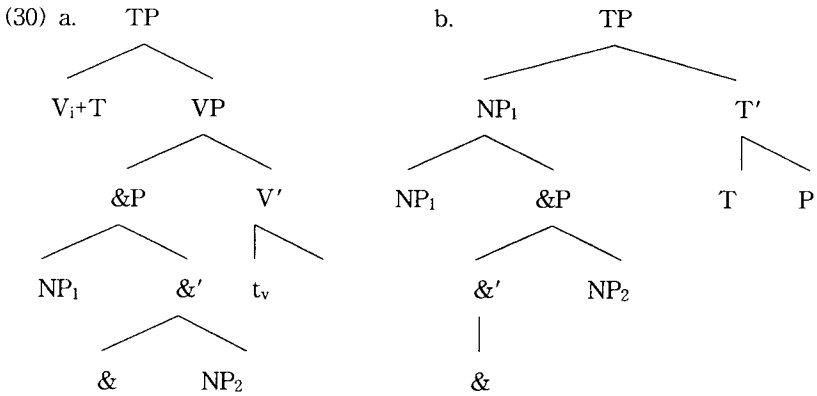
- (28) The expletive *there* lowers in covert syntax, adjoining to the indefinite NP. By means of this LF lowering, the expletive *there* can satisfy its LF affix property.

(28)의 설명은 *there*가 LF에서 동사 뒤의 NP에 연결되는 접사 이동 (affix hopping)을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전체의 등위접속 NPs가 LF에서 상승하여 *there*에 부가되어 T의 격과 Φ -feature를 점검한다면 (26)과 (27)의 문제점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Bošković (1997)은 첫 번째 접속요소와 두 번째 접속요소 사이의 비대칭성을 고려하여 설명하였다. *there*는 부분격 (partitive case)을 가지고 있는 NP에 부가되고, 이동은 이 기성 (greed) 조건에 의해서만 일어나야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설명에 의하여 *there*의 LF에서의 이동은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만 하고, 따라서 가장 짧은 이동을 수반하게 되어 가장 가까운 NP인 첫 번째 접속요소에 부가되게 된다. 따라서 동사는 첫 번째 접속요소와 일치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반면에 이러한 주어-동사간의 비대칭적인 일치 현상을 Munn (1993,

1999)은 표준 아랍어의 경우를 통해 설명하려고 하였다. 표준아랍어에서 주어+동사 어순에서는 주어와 동사사이에 모든 ϕ -자질이 일치하고, 반대로 동사+주어 어순에서는 부분적으로만 일치하며, 주로 성 (gender)자질 만이 일치한다. 이러한 점은 접속등위구문에서 적용되는데, Munn도 위의 가정을 받아들여 (29)의 비대칭현상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즉, 그는 등위 접속된 주어 NPs는 어순에 따라 일치의 부분이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SVO (주어+동사+목적어)어순에서는 전체의 접속구와 일치하고, VSO (동사+주어+목적어)어순에서는 첫 번째 접속요소와 일치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⁵⁾

- (29) a. Galatan [?el-banat we-l-wlad] ?el-bisse. (Palestine Arabic)
 Killed3pl.fem the-girls and-the-boy the cat
 ‘The girls and the boy killed the cat.’
 b. el-bannat we-l-wald gataluu el-bisse
 the-girls and-the-boy killed-3pl.Masc. the-cat
 ‘The girls and the boy killed the cat’



- (31) a. [TP T+V_i [VP Subj [V' t_i O]]] VSO 어순
 b. [TP Subj [T' T+V_i [V_p t_{Subj} [t_i O]]] SVO 어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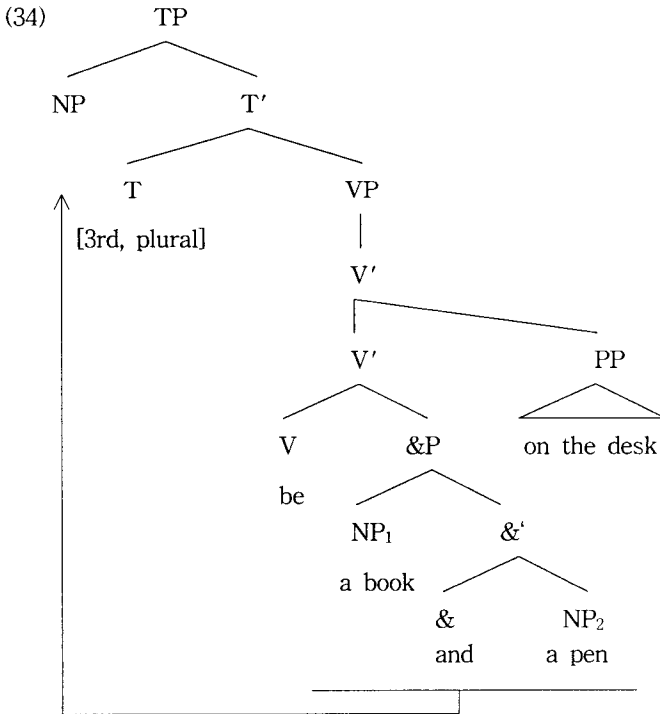
(30a)는 첫 번째 접속요소와 일치시키고 있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5) 이러한 비대칭 일치현상은 표준 아랍어 이외에도 체코어와 포르투갈어, 아일랜드어를 포함한 많은 언어에 나타난다 (Poole 2002, McCloskey 1990, Munn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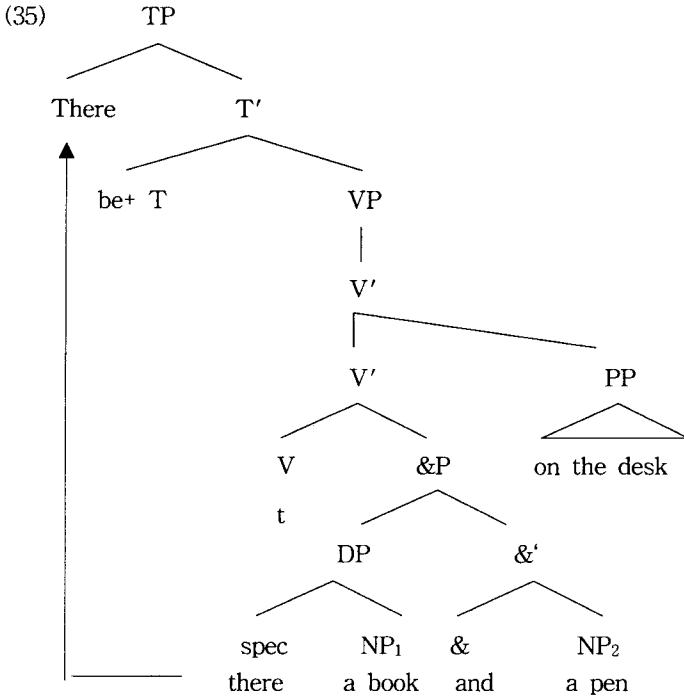
(30b)에서는 접속사구 전체가 일치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VSO 어순에서는 VP-internal 주어의 가정과 동일하게 주어는 VP의 Spec자리에 그대로 남아있고, 동사가 T자리로 이동하여 일치가 일어나는 반면에, SVO 어순에서는 TP의 Spec 자리에 접속사구 전체가 먼저 이동하고, 동사는 T에 있게 되어 주어와 동사 사이의 일치가 일어난다.

이러한 점을 아래의 (32)와 (33)의 문장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32) a. A book and a pen are on the desk.
 b. There is a book and a pen on the desk.
- (33) a. [NP [NP₁ A book] and [NP₂ a pen]] T-are t_{NP} on the desk.
 b. [TP There T-is [NP_{DP} t_{there} [NP₁ a book]] and [NP₂ a pen]] on the desk.



(34)는 (32a)의 도출을 보여주는 구조이다. (32a)에서는 T와 일치된 요소가 T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하여 T의 EPP-자질을 점검해주어야 한다. T가 NP₁과 일치를 한다고 가정하자. 두 요소간의 Φ -자질이 다른 것을 제외하더라도, 대등구조 제약 때문에 NP₁는 T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할 수 없다. 따라서 T가 NP₁과 일치하면 문법적인 문장이 도출될 수 없다. 대등구조 제약을 위반하지 않고 T의 EPP-자질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P 전체가 이동하는 것이다.



(32b)의 문장을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T의 Φ -자질은 DP의 Φ -자질과 일치하는 것이 무표적 (unmarked)라고 가정하는 것이다⁶⁾. 해석성 Φ -자질을 갖는 것은 한정사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자연스러운 가정이

6) Waller (1997)는 [Spec, DP]에서 기저 생성된 허사 there는 Φ -자질과 D-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자질을 점검하기위해 DP의 Spec 위치에서 T의 Spec 위치로 인상된다.

다. 이러한 점에서 보게 된다면, T와 &P의 일치는 유표적 (marked)인 것이 된다. 유표적인 도출은 무표적인 도출이 불가능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last resort)이다. 따라서 T와 DP의 일치가 일어날 수 있는 (32b)의 문장의 도출에서는 무표적 일치, 즉 T와 DP의 일치가 일어나야 한다.

(32b)와 같은 문장에서 T와 &P의 일치가 T와 DP의 일치보다 유표적이라는 것은 경제성 원리 Bošković (1997)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T와 DP는 직접 일치 될 수 있다. 그러나 T와 &P의 일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and로 접속된 두 NP로부터 &P의 ϕ -자질을 결정해주는 운용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T와 &P의 일치보다는 T와 DP의 일치가 더 경제적이다.

또한 영어에서 VS 어순에서 첫 번째 접속요소와 동사와의 일치현상을 보이는 경우는 there-구문 이외에도 의문문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36) a. Is a man and five women in the classroom?
 b. ?Are a man and five women in the classroom?
 c. Are five men and a woman in the classroom?
 d. *Is five men and a woman in the classroom?
- (37) a. Where is a cup and a bowl?
 b. ?Where are a cup and a bowl?

비록 위 의문문들의 경우에는 영어모국어 화자마다 문법성에 판단기준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전체의 등위 접속구와 동사를 수 일치시키는 것보다는 첫 번째 접속요소와 동사사이의 수 일치가 일어나는 경우에 더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받아들인다는 면을 고려할 때 주어-동사간의 어순이 수 일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이 연구에서는 영어 등위접속구문의 구조를 고찰하였고, 그 구조 내에서 어떻게 격을 부여하고 일치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지 고려하였다.

등위접속구문에서의 격을 할당할 때는 먼저 L-marking에 의해 &P의 장벽을 제거한 후, 격 부여자가 첫 번째 접속요소에 주격이나 대격을 직접 할당한다. 그리고 나서 격 부여자는 다시 접속사에 격 부여능력을 삼투하

고, 삼투된 접속사는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은 격을 두 번째 접속요소에 할당한다. 따라서 두 번째의 접속요소는 주격이나 대격 중 어느 하나의 격만 받으면 된다.

하지만 (38)⁷⁾의 경우를 보면 첫 번째 접속요소가 주격과 대격의 형태 둘다 가능하다는 점을 볼 수 있다. (38b)의 경우 대격을 부여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격으로 실현되었다. 이점은 더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38) a. It was I and my brothers that bought the flowers.

b. It was me and my brothers that bought the flowers.

등위접속구문에서의 수 일치 문제는 주어·동사의 어순에 따라 아랍어와 유사하게 비대칭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VS 어순에서는 첫 번째 접속요소와 동사사이에 일치가 일어나는 반면에, SV 어순에서는 등위 접속사구 전체와 동사가 일치한다. 이러한 현상은 there-구문과 의문문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there-구문 경우와 같은 VS의 어순에서는 T와 DP의 일치가 T와 &P의 일치보다 무표적이기 때문에 전자의 수 일치가 경제성 원리를 만족함으로 첫 번째 접속요소와 동사의 일치를 설명할 수가 있었다. 반면에 SV 어순에서는 대등구조 제약과 T의 EPP-자질을 만족시키기 위해 &P 전체가 T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함으로써 등위접속구 전체와 동사의 일치가 일어난다고 설명할 수가 있다.

하지만 부정어구가 문장의 문두에 있을 때 일어나는 VS어순의 도치구문은 (39)에서 볼 수 있듯이 there-구문이나 의문문의 경우와는 다르게 수의 일치가 일어난다. 즉, (39)의 문장들에서 볼 수 있듯이 VS의 어순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내용과는 다르게 첫 번째 접속요소가 아니라 전체 등위 접속구와 동사 사이에 일치가 일어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의 경우에는 추후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9) a. Little do Jane and I dream that she will succeed.

b. ?Little does Jane and I dream that she will succeed.

c. Hardly do Jane and I know the fact.

d. ?Hardly does Jane and I know the fact.

7) 조사된 12명의 원어민 화자 중 (38)의 두 문장 중 더 적합한 문장으로 a를 선택한 사람은 2명뿐이었고, 나머지 10명은 b를 선택하였다.

참고문헌

- Aoun, Joseph, E. Benmamoun, and D. Sportiche. (1994). Agreement, word order, and conjunction in some varieties of Arabic. *Linguistic Inquiry* 25: 195-220.
- Baker, M. (1988.) *Incorporation. A Theory of Grammatical Function Chang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ošković, Z. (1997). *The Syntax of Nonfinite Complementation: An Economy Approach*.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1986). *Barriers*. Cambridge, MA: MIT Press.
- Ellis, R. (2004). *The Study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arson, R. K. (1988). On the double object construction. *Linguistic Inquiry*, 19: 335-91.
- McClosky, J. (1990). A note on agreement and coordination in Old Irish, in S. Chung and J. Hankamer (eds.) *A Festschrift for William Shipley*, Syntax Research Center, UC Santa Cruz, 105-114.
- Munn, A. (1993). *Topics in the Syntax and Semantics of Coordinate Structur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 Munn, A. (1999). First Conjunct Agreement: Against a Clausal Analysis. *Linguistic Inquiry* 30:643-668.
- Poole, G. (2002). *Syntactic Theory*. New York: Palgrave.
- Ross, J. R. (1967). *Constraints on Variables in Syntax*, Doctoral Dissertation, MIT.
- Waller, B. (1997). *Toward a proper characterization of English there*. Ms. MIT.
- Zoerner, C. E. (1995). *Coordination: The Syntax of & P*.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서홍원

561-192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전화: (063) 270-2728

이메일: hongwonseo@hanmail.net

이은경

561-192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전화: (063) 270-2250

이메일: jeniffertop@hanmail.net

Received: 30 Sept, 2005

Revised: 12 Dec, 2005

Accepted: 16 Dec, 2005